

2015. 6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5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 일 시 | 장 소 | 참석인원 수 | | 비 고 |
|------------|---------------|--------|-----|-----|
| | | 위 원 | 방송사 | |
| 2015.6.29. | 대전MBC 대회의실 | 7/10 | 6 | |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박희원, 성정모, 송인덕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 방송 편성 | 방송프로그램 | | | | | 자체 심의규정 | 합계 |
|----------|--------|----|----------------|----|----|------------|----|
| | 보도 | 교양 | 연예·오락 (스포츠) | 기타 | 소계 | | |
| - | 5 | 7 | - | 1 | 13 | - | 13 |

나. 사업자 반영(건수)

| 구 분 | 수 용 | 의견참고 | 반 론 | 계 |
|-----|-----|------|-----|----|
| 건 수 | 9 | 4 | - | 13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 구분 |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 조치내용 | 제시 월 |
|----|---|--------------------------------------|------|
| 계 | 10건 | 10건 | 5월 |
| 교양 | 의학용어 전문적인 것은 풀어서 설명 | 건강관련 프로그램 전문의학용어 자막 등 풀어서 설명 | 5월 |
| 교양 | 로드다큐에서 향토성을 잘 살리고 있다. 계속 향토성을 나타낼 수 있게 제작을 | 로드 다크 <테마기행 길>에서 향토성을 살리고 있음. | 5월 |
| 기타 | 홈페이지 게시판 불필요한 부분 정리와 답변 댓글 질문란에 올리도록 | 특정인의 지나친 불필요한 사용을 정리하고 답변 댓글 질문란에 게재 | 5월 |
| 보도 | 선거 관련 지역민들의 관심사 보도, 제작 필요 | 선거 관련 토론 프로그램과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어 | 5월 |
| 편성 |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집 특강 프로그램 젊은 층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하도록 | 젊은 시청자층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 특집 특강시리즈 편성 | 5월 |
| 교양 | '고맙다와 감사하다'라는 표현 유의해서 사용 | 진행자에게 교육, 알맞은 표현 사용 | 5월 |
| 교양 | 방송 프로그램 PR 적극적으로 | 예고 PR 방송 적극적으로 제작 | 5월 |
| 보도 | 뉴스보도시 전문 용어 쉽게 전달 | 뉴스제작시 전문용어 풀어서 전달 | 5월 |
| 보도 | 보도국 천안연결 매끄럽지 못해 | 천안 스튜디오 조명, 음향 보완 | 5월 |
| 보도 | 시사플러스와 시사광장 보도국과 편성제작국에서 만드는 시사프로그램 소재 겹치지 않게 제작 | 부서간 조율을 거쳐 제작 시 소재 겹치지 않게 함 | 5월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 요 청 내 용 | 조 치 내 용 | 조치일자 | 비고 |
|---------|---------|------|----|
| | 해당사항 없음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 성 명 | 생년월일 | 전·현직 | 변동사유 |
|-----|------|---------|------|
| | | 해당사항 없음 |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 요청자(단체) | 공개내용 | 공개방법 |
|---------|--------------|------|
| 없음 |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 홈페이지 |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변동사항 없음) 임기: 2014. 5. 27.~2016. 4. 26.

| 구분 | 성명 | 전·현직 | 추천단체 | 추천부분 | 변동사유 |
|------|-----|-------------------------------------|------------------|-------------|-------|
| 위원장 | 오덕성 |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 한국도시 행정학회 | 과학기술단체 | 위촉 |
| 부위원장 | 김학선 | 전 대전MBC 편성국장 |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 언론단체 | 위촉 |
| 위원 | 장백기 |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 청소년단체 | 위촉 |
| 위원 | 성정모 | 변호사 | 대전지방 변호사회 | 변호사단체 | 위촉 |
| 위원 | 박희원 |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 대전상공회의소 | 경제단체 | 위원 유임 |
| 위원 | 한찬희 |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 문화단체 | 위원 유임 |
| 위원 | 김명수 |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 (사)대덕클럽 | 과학기술단체 | 위원 유임 |
| 위원 | 유덕순 |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 대전YWCA | 소비자보호 단체 | 위원 유임 |
| 위원 | 김형주 |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 한국영화 교육학회 | 문화단체 | 위원 유임 |
| 위원 | 송인덕 |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 언론단체 | 위원 유임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6월)

| 구분 |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교양 | <p>올레 길의 사전적 의미는 큰 길에서 집의 대문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을 의미한다. 올레는 제주 방언으로 ‘좁은 골목’을 뜻하는데, 지난 2007년 개발된 이후 도보 여행지로 성공한 제주 올레 길은 제주도의 관광 사업에 크게 기여 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보 열풍을 가져왔다. 이후, 지리산 둘레길, 남해 지갯길, 무등산 예길, 충남 연가, 남한산성길 등이 대표적이다. ‘충남 연가’는 충남을 대표하는 옛 길로, 태안 바라길<생태>, 백제길<역사>, 고성가도<역사>로 구성 돼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p> <p>우리말의 ‘길’ 이라하면, 좀 더 자연스런 통로를 연상하는데 비해, 도로라 하면 이른바 신작로 이후의 인공으로 정비된 길을 연상한다.</p> <p>도로는 ‘사람이나 차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비교적 큰 길’을 말한다.</p> <p>전국의 1일 생활권화를 실현하기 위한 도로정책으로 도로의 직선화, 단축노선 개설(터널 개통)등으로 인해 주 통행로에서 이제는 ‘사람과 차들이 찾지 않는 잊혀 저 가는 길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다.</p> <p>한때는 도로였지만 이제는 ‘길’로서 명맥을 잇고 있는 곳들을 다시 한 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p> <p>미루나무나 플라타너스가 있던 아련한 향수의 길 ‘신작로’, 자동차가 지나 갈 때면 흙먼지가 푹푹 날렸던 그 시절의 신작로. 지금은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로 바뀌면서 거의 볼 수 없게 된 신작로지만, ‘잊혀 저 가는 길’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을 듯싶다.</p> <p>될 수 있으면 이러한 길들이 무작정 관광길로 개발되기 보다는 주민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김학선).</p> | <p>대전·충청권에서도 많은 <길>들이 새로운 명칭을 부여 받아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각 프로그램에서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p> | ○ | | |
| 보도 | <p>이제는 우리 귀에도 익숙한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가 한 달이 넘어 가면서 진정국면에 들어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생소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과정에서 우리에게 각인된 단어는 ‘기저 질환’과 ‘음압 병실, 음압 시설’ 이다.</p> | <p>앞으로 시청자 눈높이에 맞춘 방송기사가 송출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특히 의학 관련 용어 사용 시 더욱 신경을 쓰겠다.</p> | ○ | | |

| | | | | |
|-----------|--|---|----------|--|
| | <p>이 의학용어는 최근 메르스 사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한 달 넘게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와 있다. 많은 이들이 그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p> <p>‘기저 질환’이란,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병, 지병을 말한다. 뉴스에서 메르스 환자에게 기저 질환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환자가 천식, 고혈압, 당뇨, 신장병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기저 질환’이란 ‘지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래부터 앓고 있던 만성 질환을 가리킨다.</p> <p>‘음압 병실, 음압 시설’은, 실내의 기압을 외부보다 약간 낮춘 환경을 말한다. 즉, 내부에서 계속해서 공기를 일정 분량씩 빨아들이면서 외부에서 공기가 병실로 들어오도록 하고, 반대로, 병실에서 공기가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된 것을 말한다.</p> <p>이런 환경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병실의 압력을 낮춘 병실>.</p> <p>방송언어는 쉬운 말이어야 하고, 생각하게 하는 말 이어서는 안된다. 쉽게 풀어 써야 한다.</p> <p>지난 달 회의에서는, 뉴스에서 인용한 건축 용어 ‘용적률과 건폐율’이 거론된 바 있다. 풀어쓰기에 쉽지 않지만, 될 수 있으면 풀어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김학선).</p> | | | |
| <p>보도</p> | <p>시사광장(6/14) “세계과학정상회의, 기대와 과제는?”을 모니터하였다. 10월 개최예정인 과학정상회의 준비 및 추진상황 관련하여 패널로 실무적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미래부의 준비기획부단장과 대전시의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이 참여하여 현재 준비상황을 잘 설명하였다.</p> <p>또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인 KISTI 원장, 대전시관광협회장 등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패널 구성을 한 노력이 돋보였다. 토론에 앞서 정상회의 유치과정과 진행내용 등 소개자료를 먼저 보여준 것도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좋은 방식으로 생각된다. 특히 동기간중 대전시의 사이언스페스티벌과 연계하여 행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대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이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세계적 행사를 위한 예산, 인력, 숙박시설의 부족 문제와 해결 방안으로 인근지역인 청주, 부여, 공주 등을 연계하여 한국의 정서 문화체험의 기회</p> | <p>대전시 과학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대전MBC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소재의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제작, 방송하고 있다.</p> <p>10월 세계과학정상회의 개최가 임박한 시점과 폐막 이후에도 각각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토론과 행사의 성과를 분석하는 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p> | <p>○</p> | |

| | | | | |
|----|---|--|---|--|
| | <p>를 제공하자는 대안도 제시되어 보기 좋았다.</p> <p>준비기획단 출범 이후 행사준비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본 행사를 통해 대전이 세계속의 과학도시로서 위상제고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창조경제 사례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창조와 best practice로 보여줄 기회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다리 역할로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공동의 미래를 위한 대전선언문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세계과학정상회의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송해 주길 바란다(김명수).</p> | | | |
| 교양 | <p>“미래특강 (6/12) 트렌드 코리아”는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김난도 교수를 초청한 특강이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소비자 고객의 미래 트렌드에 대한 10가지 키워드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 중심의 강연으로 유익한 방송내용이었다.</p> <p>“사람은 왜 소비할까?” 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트렌드도 변화하고 궁극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소비한다”는 결론을 유도했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경쟁자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고, 자신의 과거 성공체험을 부인할 수 있는 트렌드 마인드를 갖고 “나는 무엇을 바꿀까?” 라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p> <p>2015년 양띠의 해를 “COUNT SHEEP” 이란 단어로 정의하여, 다음 10글자를 활용하여 올해의 트렌드를 분석하였다.</p> <p>채널이슈 - 유통업은 치열한 경쟁시대 남성은 온라인, 여성은 모바일 선호, offline 매장은 경험을 중요시 꼬리가 몸통 흔든다 - 사은품 때문에 본 제품 구매하기도 함 매일 품나게 자랑한다 - 셀카의 등장 과시 3.0 → SNS를 통하여 경험도 과시가 된다 골목상권이 뜬다 - 지역 1등이 전국 1등 된다 (IT 기술의 발달) 결론 : 소비자에게서 답을 찾아라 - 고객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p> <p>이런 유익한 강좌는 계속적으로 시청자와 지역민을 위해 진행했으면 한다(김명수).</p> | <p><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15>는 대전MBC에서 올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미래특강 제2편이다.</p> <p>그간 대한민국 청년들의 멘토로 널리 알려진 김난도 교수를 초청해서, 김난도 교수의 전공인 소비트렌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명쾌하고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한 시간이었다.</p> <p>시청자들의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프로그램이었고, 많은 요청으로 재방송까지 편성하여 방송하였다.</p> <p>앞으로 시청자들이 유익한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 ○ | |
| 기타 | <p>홈페이지를 들어 가보니 프로그램 VOD 창에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p> | <p>앞으로 홈페이지를 시청자,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활용하기 편하게 계속해</p> | ○ | |

| | | | | | |
|-----------|---|--|----------|--|--|
| | <p>인할 수 있었다. 좋은 착상이라고 본다.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보았는지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고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유도할 수도 있어 좋은 시도라고 판단된다(김명수).</p> | <p>서 구축하겠다.</p> | | | |
| <p>보도</p> | <p>시사광장 「청년실업 돌파구 없나?」를 시청하였다. 대전, 충남 경영자 총협회 강도목 회장, 대전광역시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충남대학교 한명구 취업팀장, 취업준비생 강우진 군이 출연하였다.</p> <p>청년실업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토론회였다. 시청하면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눈에 띄었다.</p> <p>취업준비생 남, 여 대학생의 청년들의 취업 애로점을 더 들어보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충남대학교 등 취업 지원 부서의 다양한 지원활동 상황 설명이 미흡했다.</p> <p>고용 노동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전상공회의소 공동으로 2015년도 취업박람회를 년2회 개최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강조했더라면 더욱 좋았겠다(한찬희).</p> | <p>향후 취업 지원 기관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의 자세한 활동 상황을 소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p> | <p>○</p> | | |
| <p>교양</p> | <p>6월 22일자 시사플러스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해외직구 현상과 최근 국제고 전환으로 인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전고를 조명한 시청자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p> <p>해외직구의 발생 배경, 유형, 장단점 등을 적절한 다이어그램과 전문가의 인터뷰 취재를 통하여 알려주는 것은 시청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또한 해외 직구의 이용 사례, 부작용 및 문제 발생 사례의 경우 실제 이용자의 취재를 통해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충분한 공감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만, 해외직구 시장의 열린 가능성 측면을 좀 더 심도 깊게 다루어 주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았다.</p> <p>한편, 대전 국제고 전환을 앞둔 대전고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균형있게 방송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주는 진행자의 설명은 시청자의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앞으로도 시사플러스가 대전의 현실에 놓인 문제를 파악하고, 중립적 시각에서 대전 시청자들이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오덕성).</p> | <p>시사플러스는 보다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재를 발굴하려 노력하고 있다.</p> <p>해외직구의 경우 시청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아이템으로, 시청자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었다.</p> <p>앞으로도 많은 시청자들이 즐겨볼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 <p>○</p> | | |

| | | | | |
|-----------|--|---|----------|--|
| <p>교양</p> | <p>건강플러스 「자궁근종」 편(6월 20일)을 시청하였다. 이번 주 건강플러스에서는 부종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고 자궁근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다.</p> <p>먼저 ‘맛있는 처방전’에서는 최근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부종에 좋은 음식과 재료를 소개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이끌게 하였다. ‘TV주치의’에서는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인 자궁근종에 대한 중요성과 자궁근종의 원인, 치료법과 수술법 또는 비수술법 등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자료화면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어 시청자들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p> <p>또한 스튜디오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출연하여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제 환자의 인터뷰를 듣거나, 시청자들의 질문을 직접 받고 대답해 주는 부분은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사회자의 인사말이나 프로그램의 순서에 상관없이 바로 맛있는 처방전이 시작되어 이해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느껴진다. 또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자막으로 보여주거나 다이어그램 등을 활용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오덕성).</p> | <p>건강플러스는 현대인들이 가장 정보를 원하는 <건강>에 대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p> <p>전문가가 출연하여 질병의 증상과 치료, 예방까지 알려주고 있다. 방송에 익숙치 않은 출연자의 경우, 용어의 사용이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p> <p>앞으로 출연자에 대한 방송에 대한 교육 및 사전 연출에 보다 더 힘쓰겠다.</p> | <p>○</p> | |
| <p>교양</p> | <p>메르스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어수선하다. 메르스에 대한 기사가 연일 매스컴을 장식한다. 발 빠르게 <건강플러스>에서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본다(유덕순).</p> | <p><메르스>와 관련된 건강정보 전달의 경우, 메르스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한국 내에서는 아직 형성되지 못한 단계이고, 지역사회 분위기 또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에 급급한 분위기였기에 건강플러스에서의 방송은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통해서 메르스의 증상과 대처, 예방에 대해 이미 방송하였다. <메르스가 남긴 교훈>편을 시사플러스에서 제작 중에 있어, 메르스에 대한 부분은 방송될 예정이다.</p> | <p>○</p> | |
| <p>보도</p> | <p>메르스가 진정되어 일상생활로 전환된다면 반드시 방역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의료서비스 체계에 대해 면밀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보도국에서 이에 대한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유덕순).</p> | <p>보도에서 메르스 이후 방역체계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뉴스에서 후속 보도를 할 예정이다.</p> | <p>○</p> | |
| <p>교양</p> | <p>시사플러스 “독립운동가 김태원의 진실”(6월 5일)편이 보았다. 대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손꼽히는 김태원. 국가 보훈처 공훈록에 그의 자세한 공적들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공훈록의 대부분의 공적들이 이름이 같은 독립운동가 평북 김태원과 안</p> | <p>시사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객관성 유지 는 제작진이 가장 기본으로 삼는 덕목이다. 이러한 객관성 위에서 다루는 아이템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독립운동가 김태원 논란은 이러한 객관성 유지에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p> | <p>○</p> | |

| | | | | | |
|----|--|--|---|--|--|
| | <p>성의 김태원의 공적을 짜깁기했고, 남의 공적을 이용해 건국공로훈장 독립장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음을 상세하게 보여주었다. 엄숙하고 무게감 있게 느껴졌다.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면서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모습에 제작자의 노고를 읽을 수 있었다. 좋은 작품이다.</p> <p>시사플러스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든다. 한 프로그램에 주제가 다른 2편의 코너를 소개하면서 갖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이다. 한 편은 메인으로서 전체를 시사플러스의 기획의도에 맞게 전개해 나가는 데 다른 1편은 마치 남는 시간을 끼어 맞추어 부록을 만든 것처럼 느껴진다.</p> <p>메인이 27분이라면 7분정도의 적은 방송시간량에 에세이처럼 가볍게 처리하는 듯하다</p> <p>하나의 아이템으로 전체 방송시간량을 채우던가 두 개의 코너로 구성을 할 것 같으면 코너 각각에 동일한 비중을 두어 구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김형주).</p> | <p>시청자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다. 앞으로도 시사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한 제작에 힘쓰겠다.</p> <p>메인 아이템과 동시에 방송되는 서브아이템은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 서브 아이템은 20분 이상을 방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방송할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소화하기위한 배려가 깔려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란다.</p> | | | |
| 교양 | <p>6월16일에 테마기행 길 ‘추억 속으로 걷다’ 편이 방송되었다.</p> <p>테마기행 길에서는 7080세대, 즉 베이비부머 세대라면 모두가 공감하고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 ‘추억 속으로 걷다’ 편을 방영하였다.</p> <p>본인과 같은 동 시대 이야기라 그런지,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으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고 영상 속 그 시절로 돌아가게끔 해 준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본다.</p> <p>이날 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보면 양호진 가수와 양용진 제주향토음식연구가의 어린 시절 제주도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렸다.</p> <p>제주 원도심의 중심지였던 묵은성, 그 옛날 관공서와 우체국 등이 들어서 있던 관덕정, 하도리 바닷가에서 대나무에 낚시줄을 엮어 하던 고망낚시와 바룻잡이, 지금은 향사당으로 복원된 옛 신성유치원, 제주 최초의 근대식 제주극장, 지금은 50대 중반이 된 고교동창생들의 동문체육대회, 함덕 서우봉 둘레길 등 전체적인 구성과 진행 또한 중년 세대인 시청자들에게 지난 행적들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었다고 평하고 싶다.</p> <p>또한 이제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야</p> | <p>이 번 <테마기행 길> 편은 제주MBC가 제작하였다. 각 지역방송사가 갖는 지역 고유의 향토성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대전MBC에서도 우리 지역 고유의 향토성을 살릴 수 있는 소재를 찾아 유려한 영상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감동이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겠다.</p> | ○ | | |

| | | | | | |
|-----------|--|--|----------|--|--|
| | <p>할 시점에 와있는 우리 중년세대들.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과 자녀에 대한 지출의 부담까지 어깨에 진 중년세대들의 추억속 여정을 통해 앞으로 남은 여정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의 기회도 가져다주었다고 본다(장백기).</p> | | | | |
| <p>보도</p> | <p>지금 대전MBC는 시청자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많이 엿보인다. 보도부문에서 2대 기획으로 인생2막과 과학대전을 선정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후 삶인 인생2막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은퇴 후 삶에 대한 기획보도는 언제부터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장백기).</p> | <p>갑자기 불거진 메르스 사태로 방송시점이 순연됐다. 취재팀을 재정비해 빠른시일 내에 방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p> | <p>○</p> | | |